

戰國時期 金文的 繁化現象 考察

姜 允 玉*

< 目 次 >

I. 머리말	2. 筆劃의 증가
II. 繁化의 原因	3. 偏旁의 증가
III. 繁化의 規律	IV. 繁化의 影響
1. 鳥·蟲·爪形 및 일반 장식의 증가	V.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東漢시대 經學大師 許慎이 戰國時期 文字 연구에 끼친 공적이 높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는 <說文解字> 敍에서 戰國 당시의 문자 상황을 언급하면서, ‘言語異聲, 文字異形’¹⁾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淸儒 段玉裁는 注解하기를 “七國은 제각기 그 방언이나 속어를 언어로 사용하였고, 제각기 마음대로 文字를 생략하거나 고쳐서 사용하였다. 말을 하는데 소리가 달랐던 것은 음과 韻이 같지 않았던 것이고, 문자의 형체가 달랐던 것은 체제가 정립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수레가 軌를 같이 하고, 글이 문자

* 成均館大學校 中文科 講師

1) 東漢, 許慎, <說文解字·敍>에 戰國時期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언급된 말이다. 「分爲七國, 田疇異畝, 車塗異軌, 律令異馮, 衣冠異制, 言語異聲, 文字異形」

를 같이 하는 것은 이때부터 변화가 성행한 것이다.”²⁾라 하였다. 이렇듯 戰國文字는 秦文字 통일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中國文字 변천사에 있어 한 段落을 차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國時期文字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에 이르러서의 일에 불과하다.³⁾ 그 후 30여년간에 걸쳐 수 많은 새로운 자료가 대량으로 발견되고⁴⁾ 이에 따른 연구가 속출 함으로써, 비로소 古文字學界에서 독립된 한 연구 분야로 인정 받게 되었다. 古文字學界에서 소위 말하는 ‘戰國文字’란 春秋末年에서 秦統一 以前の 역사 시기에 있던 齊·楚·燕·韓·趙·魏·秦 등의 국가가 사용한 고문자를 말한다.

何琳儀에 의하면 이 시기는 古文字의 末期 書寫形式으로, 글자형체는 이미 篆書와 隸書의 형태를 띠는 것이고, 書寫材料로는 金屬·石器·陶器·木器·漆器·帛 등의 다양한 제품을 書寫용구로 사용한 시기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상황은 殷商時期的 甲骨·西周時期 吉金만을 위주로 하는 文字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형태의 文字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文字異形’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戰國시기의 古文字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文字異形’ 현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가운데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형태인 繁化나 簡化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文字 발전과정에 있어 줄곧 공존해 온 繁化나 簡化현상 중에서 우선 繁化현상만을 선택하여 戰國時期 繁化字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현상은 어떠한 지 알아보고, 아울러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타난 규율과 문자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 2) “各用其方俗語言，各用其私意省改之文字也。言語異聲則音韻歧，文字異形則體制惑，車同軌，書同文之盛於是乎變矣”
- 3) 1950年代 末期에 이르러 戰國文字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저술이 나왔다. 이는 李學勤교수의 <戰國文字題銘概述>로, 전해 내려오는 자료와 출토된 자료, 즉 金·石·貨·璽·陶·簡·帛등을 모두 참고하였다. 이들 지역 특징에 따라 齊國題名, 燕國題名, 三晉題名, 楚國題名, 秦國題名 등 5개 범주로 나뉘었는데, 이를 필두로 많은 연구결과가 속출하였다.
- 4) 何琳儀, <戰國文字通論>중, 第1章, 戰國文字的發現和研究
- 5) 何琳儀, 앞의 책 p1

II. 繁化의 原因

戰國時期에 특히 많이 존재했던 繁化現象은 異體字의 한 形態로 初文에 文字形體가 增加된 것을 일컫는 것이며 增加된 부분을 생략한다해도 意味上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時代와 環境의 요구에 의해 생겨 나기도 하고, 文字의 質的·量的變化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생겨난 繁化字는 오랜 세월 사용됨에 따라 常用字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폐기되어 당대에 없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繁化字가 생겨 나게된 좀더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文字를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形과 音이 합쳐져 만들어진 병음구조를 가진 문자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文字는 形·音·義 세부호가 결합하여 구조를 이룸으로써 자연히 文字의 繁體나 簡體와 같은 '字形上'의 문제도 생겨났다. 그 가운데, 특히 繁化된 文字는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文字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실험 결과는 이러한 복잡한 繁化字도 오히려 쉽게 습득내지는 인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다. 1930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漢字의 구조는 잘 갖추어진 組合형태와 같아서, 일종의 'Gestalt'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⁶⁾ 즉 글자와 글자를 구별하는 데는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혼동되지 않게 하고, 배우고 이해할 때 筆劃이 많고 적음은 기억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筆劃이 많은 것이 쉽게 인식된 다는 것이었다.

杜學知教授는 여러편의 文章中 美國心理學者 Erdmann & Dodge의 실험을 인용하여 '글자의 筆劃은 비교적 복잡하거나, 視覺上 특수하게 表示된

6) 杜學知, <中國文字의 簡化問題> 문장중 인용된 의견및 觀點, <中國文字論集> p203~230

형식이 쉽게 인식되며, 또 筆劃이 가장 복잡한 字를 인지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筆劃이 단순한 글자를 인지하는 것보다 적게 걸린다는 것이다.⁷⁾ 즉 복잡한 글자는 쉽게 사람의 주의를 끌며, 학습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인상이 깊어지며, 실령 잊어 버렸다고 해도 후에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되면서 쉽게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극히 간단한 古文字가 쉽게 인지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 것이다.

金文의 문자 繁化現象은 이러한 心理學上 내재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학습시 이해를 증가시켜주고,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② 文字를 美化시키기 위하여

李學勤教授는 <中國青銅器的奧秘> 중에서, 殷商時期 氏族을 상징하는 사물을 銘文으로 새긴 것은, 銘文이 藝術化를 추구하기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하였다.⁸⁾ 이러한 예술적 추구는 戰國時期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한 裝飾을 추가하여 繁化字를 만듦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즉 의미없는 작은 점을 더하거나, 짧은 劃을 더 굵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소용돌이 모양을 덧붙여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鳥蟲形, 爪形 등의 圖案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식의 첨가는 字義와는 無觀한 것으로 오로지 글자의 美觀을 위한 것이었다.(그림 1~2 參考)

③ 文字 구조의 정연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文字의 형체가 고정되기 전에는 文字의 繁·簡·位置 등이 자유자재로 쓰였다.⁹⁾ 특히 象形과 指事는 거의 圖畫단계에 있었으므로 자주 筆劃을 增

7) 杜學知, <漢字三論, 簡字難學> p48~58

8) 李學勤, <中國青銅器的奧秘> p103, <古文字學初階> p34, 두책 모두 商周金文, 繁文 예술성에 대해 개괄적 설명만 한 것으로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減시켰고, 左右·橫·直 모두 마음대로 통용되었다. 그 후 會意 形聲字が 증가 함에 따라 文字 구조가 획일·정연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들은 戰國時期에 이르자 더 많이 文字에 반영 되었는데, 특히 1975年 平山縣에서 발견된 中山國文字 通假字에는 形聲字가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文字가 정연함과 균형을 갖추기 위해 획수를 더하고, 偏旁을 더하여 形聲文字가 증가하게 된 원인도 文字가 繁化된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Ⅲ. 繁化의 規律

古文字의 형체는 可變的인 것과, 不可變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可變的인 것은 탄력성이 커서, 형체가 正·反·直·邪·曲, 上下左右 筆劃의 多寡, 偏旁有無, 偏旁交換 등에 상관없이 모두 원래 文字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하며 不可變的인 것은 문자 그대로 한 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點·劃 등에 조금의 변동이라도 있으면 문자로 성립될 수 없거나, 다른 文字로 변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繁化字란 대체로 前字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繁化된 것인지 혹은 왜 繁化 하게 되었는지 繁化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시킬 것인지 쉽게 규명해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¹⁰⁾, 적어도 初文에 증가된 文字形態를 보고 발전된 규율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戰國시대에 이르러 발전해 온 鳥蟲書나 蝌蚪文 등의 奇字들은 小篆과 籀文을 기본문자로 삼고 여기에 장식성의 文字를 더한 것이다. 그 밖에 筆劃의 增加, 偏旁의 增加 등에서도 여러가지 현상을 나타내므로 繁化의 규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규명해 보면 아래와 같다.

9) 李孝定, 《漢字史話》중 <早期漢字形體結構的特質及其衍變的幾種大致的規律>의 문장에는 早期 漢字가 지니는 不定形의 특질에 대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p54~61

10) 何琳儀는 앞의 책 p194에서 "很難捉摸繁化者的動機"라 밝힌 바 있다.

1. 鳥·蟲·爪形 및 일반장식의 增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裝飾性 文字는 殷商시기에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나 가장 왕성하게 사용했던 시기는 역시 戰國時代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식성 文字가 많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戰國시대의 백가가 꽃을 피운 사상적 번창과 君主들의 미를 추구하는 성향 및 匠人의 탁월한 美感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時期 대표적 장식성의 文字로는 鳥蟲書를 들 수 있다. 사실 鳥書의 기원은 商代의 卜辭로 '高祖王亥'에서 비롯된 것이다.¹¹⁾ 이 당시 鳥書는 글자에 새의 형태를 도안하여 장식한 것으로 본자와 새의 형태를 분리시킬 수 있는 繁化字 였다. 그러나 戰國시기에 이르러서는 商·西周時期와는 달리, 새의 형태를 편방으로 부가시킨 것 외에도, 本字와 새의 형태가 하나가 되어 쉽게 분리되지 않으면서 繁化된 字體까지 더 생겨난 것이 특징이다.¹²⁾ 이러한 형태는 주로 南土系文字 吳·越·楚·蔡 등의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다음 페이지 그림 1a~e)

2. 筆劃의 증가

① 작은 점의 첨가

甲骨文에도 이미 상당수 점을 첨가 시킨 繁化字가 있었다. 이에 관해 康殷은 <古文字形中的小點>이라는 文章에서 점의 종류를 16가지로 분류하고 예증을 통해 상세히 밝혀낸 바 있다.¹³⁾ 이러한 현상은 西周金文시기에 이르러 잠시 주춤 했다가 戰國시대에 와서 또다시 大量으로 작은 점이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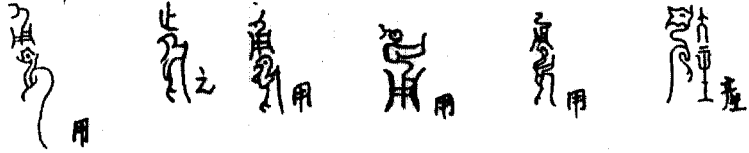
11) 董作賓, <殷代的鳥書>, 大陸雜誌, 第六卷, 第11期

12) 容庚, <鳥書考>, 燕京學報, 16期 p303에서 鳥書形式을 3종류로 밝힌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一鳥紋與筆劃作簡單之鳥紋者, 如縷仔印是也."를 예로 들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子顯戈, 自作用戈등 많은 예가 있다.

13) 康殷, <古文字學新論附錄五·古文字形中的小點> p609~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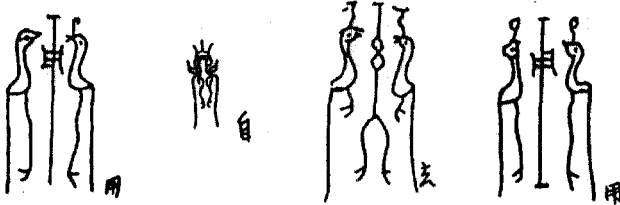
그림1)

a. 새의 전체 형태를 첨가



吳季子之子劍 楚王飲璋戈 越王劍 越王州句劍 蔡侯產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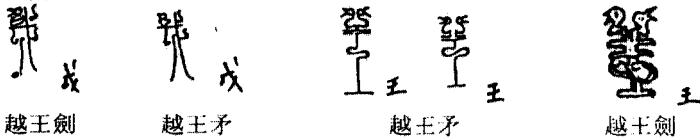
b. 2마리 새의 형태를 첨가



子賁戈 越王州句劍 玄鏐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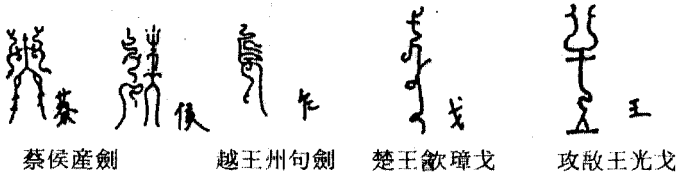
c. 새의 머리 형태를 첨가

d. 두 마리 새의 머리 형태를 첨가



越王劍 越王矛 越王矛 越王劍

e. 간화시킨 鳥·蟲形을 첨가



蔡侯產劍 越王州句劍 楚王飲璋戈 攻敵王光戈

되었다.

이는 대부분 문자 구조상으로는 어떤 의미도 갖지 않고 다만 美觀上 장식의 의미만 가진 형태였다. 첨가된 위치도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점의 숫자 역시 제한 없이 자유로 쓰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점의 대부분은 긴 곧은획 또는 굽은획 선상에, 혹은 공간이 많은 글씨에 여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다. 이러한 종류의 繁化字는 三晉系統¹⁴⁾ 중에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中山國 銘文에 가장 많았다. 楚·蔡·越 등의 南方 지역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秦의 銘文에는 그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秦의 文字가 周나라 宗室의 문자 체계를 많이 따른 것도 알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다음 페이지 그림 2.a~d)

② 劃의 첨가

작은 점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線을 증가시킨 繁化는 단지 글자의 균형을 위해 한 획 혹은 두 획을 짧게 더 굵는 것으로 원래 文字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春秋末期, 六國文字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특히, 劃을 첨가시킨 繁化字는 자형구조상 잘못 이해하기 쉬우므로 해독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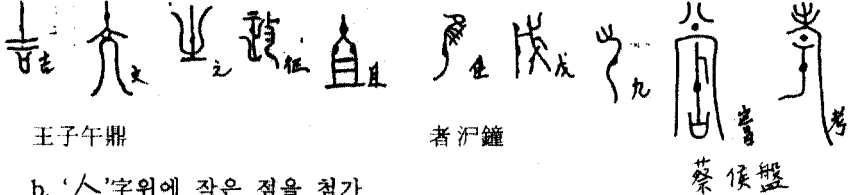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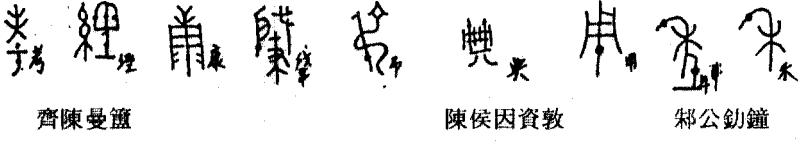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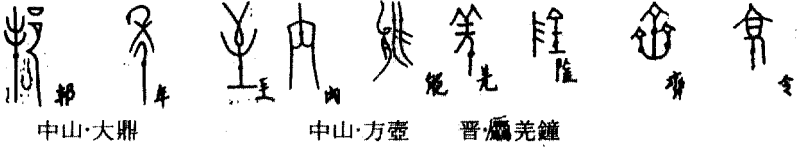
a. 짧은 가로劃의 첨가(다음 페이지 그림 3.a~d)

以上の各例에서 공통된 현상을 찾아낼 수 있다. 즉 口형에 橫劃을 첨가한 경우 이외에는 戰國文字에 나타난 橫劃의 첨가현상은 戰國 전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가운데서도 楚지역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三晉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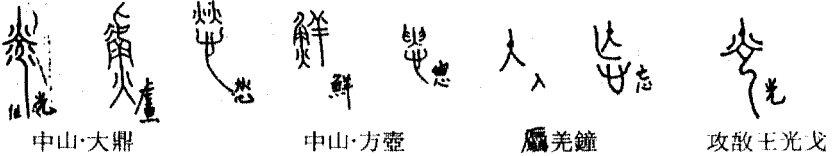
14) 1934年 郭沫若이 《兩周金文辭大系》에서 처음으로 戰國銅器 銘文을 時代와 지역을 나누는 기반을 확립했다. 그 후 陳夢家도 《海外金文圖錄》에서 地域에 대한 구분법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문장에서는 주3)에서 밝힌 李學勤의 《題銘》의 5分法을 따르기로 한다.

그림 2)

a. 鬲은 鬲 또는 굽은 鬲에 작은 점을 첨가



b. '人'字위에 작은 점을 첨가



c. 여백 안에 작은 점을 첨가



d. 여백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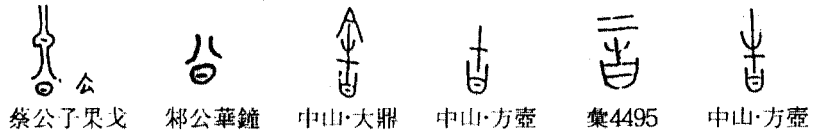
그림 3) a. 짧은 가로획의 첨가

	例 字				
天作 夭					
	屬羌鐘	中山·大鐘	蔡侯盤	蔡侯鐘	
正作 正					
	陳子匱	邾公鈞鐘	蔡侯盤	鄭子璽	禽志鼎
征作 征					
政作 政	邾鬬尹鉏	中山·大鼎	中山圓壺	王孫鐘	
而作 而					
可作 可	方壺	中山·大鼎	蔡大鼎	彙2632	中山·圓壺
河作 河					
市作 市					
師作 師	蔡大師鼎	國差罇	禽志鼎	鄂君啓節	中山·圓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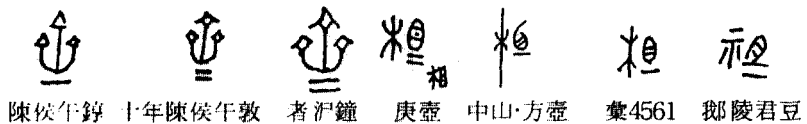
b. '人'字 또는 冫은 선위에 짧은 劃을 첨가



c. '口'字에 짧은 劃을 첨가



d. 글자 끝 부분에 가로劃을 첨가



b. 짧은 ‘二’劃의 첨가

中山國 여러 銘文 가운데는 ‘二’가 첨가된 장식 부호가 많다. 이러한 短劃이 모두 ㄱ 사이 여백에 썩여있는 것으로 보아 短劃 ‘二’는 여백을 메꾸는 장식적 효과와 文字形體에 있어 균형의 美를 추구하는 두 작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二’ 短劃의 作用은 모두 字義와는 무관한 것으로, 단지 네모난 글자의 형태를 취하는 한자의 구조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다. 이는 이 시기에 많이 쓰인 重文·合文 부호와 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장식성 ‘二’ 短劃은 여백을 메꾸기 위해 빈 공간에 쓰인 것이지만, 重文·合文부호는 모두 文字의 오른쪽 아래에 부치는 의미가 있는 부호(子_二 孫_二)라는 것이다.(다음 페이지 그림 3.e)

c. 짧은 사선의 첨가

짧은 사선을 장식으로 첨가한 예는 中山國文字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다음 페이지 그림 3.f)

d. 소용돌이 ‘ㄱ’문양의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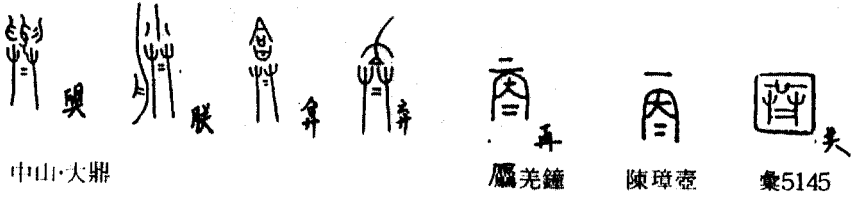
소용돌이 문양ㄱ는 左·右에 있는 것과, 병렬모양 등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양의 방향은 여백을 메꾸어야 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숫자의 많고 적음도 여백에 따라 정해졌다. 이러한 繁化 문양 역시 三晉系 中山國 文字에서만 있던 독특한 품격이다. 그 밖에도 中山國 銘文에는 ‘ㄱ’字가 장식성 繁化字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체 또한 中山諸器만이 갖는 特徵이다.(다음 페이지 그림 3.g.h)

e. 筆劃의 延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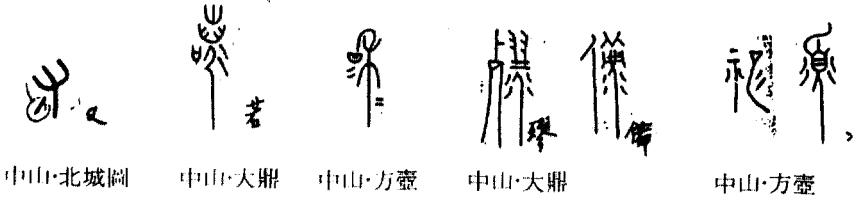
金文을 鑄造하고 새길 때, 특수한 美觀효과를 내기위해 筆劃을 연장시킨 것은 初期 金文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은 역시 戰國時期라 할 수 있다. 이는 文字가 발전한 社會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예술적 현상으로, 글자 자체를 늘린 것은 장식 효과를

도표 3)

e. 짧은 '二' 劃을 첨가



f. 짧은 斜線을 첨가



g. 'ㄱ' 文樣 첨가



h. 'ㄴ' 文樣 첨가



i. 筆劃의 延長



위한 도안 때문인 것이다. 특히 三晉系의 文字나 楚·越 등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앞 페이지 그림 3.i)

3. 偏旁的 增加

偏旁을 더함으로 인해 생긴 繁化字는 戰國時期 金文中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전지역에 걸쳐 나타나며 비교적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규율이나, 증가된 偏旁을 제거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文字의 意味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로는 形·音·義를 偏旁으로 하는 세가지 형태의 繁化가 주된 것으로 그 가운데 形符의 增加방식이 가장 많이 존재했다. 이는 다시 形體를 重複시킨 것, 偏旁을 重複시킨 것, 字義와 상관된 形符를 증가시킨 것 등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 音符를 증가시킨 繁化·義符를 重複시킨 繁化는 수량이 많지 않다.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文字形體의 重複

文字形體를 중복한 繁化의 상황은 한개의 문자를 중첩하거나, 두 세 개까지 중첩한 것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畀文도 결국 畀字의 初文과 의미는 같다. 즉 初文이 이미 그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形體를 중복해서 만든 繁化字는 더러는 初文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田’ 字는 사방에 이미 경계선이 있다는 의미이나, 田을 하나 더 더함으로 繁化된 글자(畀)는 밭과 밭사이에 있는 경계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더 강화된 것이다. ‘不’ 字는 본래 ‘丕’의 의미가 있었다. 不을 두번 씌우므로 ‘不不’는 ‘丕顯’ 즉 더욱 두드러진다는 뜻으로 의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至’는 화살이 땅에 내려 앉는 모양을 본 뜬 文字로 ‘至至’를 중복함으로 화살이 땅에 이르는 것을 저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역시 의미 강화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이러한 ‘山’·‘水’·‘魚’·‘東’ 등의 중복된

글자를 하나의 부수로 세웠다. 이는 繁化에서 오는 의미 강화작용을 생각하지 못한 오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林義光은 ‘𠄎’字를 ‘𠄎’이, 그 聲符로 마땅히 ‘𠄎’의 繁文이라고 여겼으며, 高鴻珩은 이러한 것은 ‘戰國時, 秦用 縮文, 多複體’의 원인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 이는 특히 戰國 璽印에 주로 나타나는 現象이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다음 페이지 그림 4.①)

② 偏旁的重複

偏旁을 중복시킨 繁化字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가운데 美觀上 부가시킨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것은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해 偏旁을 증가시킨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도하게 복잡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 후세 사람들에게 의해 簡化된 것이 많은 상황이다.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다음 페이지 그림 4.②)

③ 形符의 增加

戰國文字에서 形符를 증가시킨 글자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形符를 증가시켜도 文字의 表意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글자의 균형을 위해 혹은 장식을 위해 더하는 無意偏旁 첨가와, 둘째 대다수의 경우로 原字의 속성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偏旁을 더하는 標意偏旁 첨가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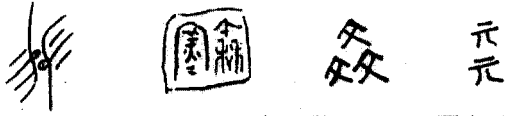
a. 無義偏旁

戰國文字중 특히 中山國 銘文과 璽印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無義偏旁으로는 厂·宀·戶·立·口·心 등의 偏旁이 주로 많이 쓰였다.(다음 그림

15) <金文詁林>卷八, p5417~5418

4.③.a)

그림 4) ① 文字形體의 重複



中山·方壺 字徵七·五下 鞏文·九·一 鞏文·附一·0

② 偏旁방의 重複



中山·圓壺 中山·大鼎

鄂君啓節

③ 形符의 증가

a. 無義 便旁



中山·方壺

中山·北城圖

中山·大鼎

中山·方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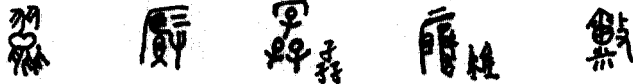
中山·大鼎



中山·方壺

中山·圓壺

中山·大鼎



鄂君啓節

鞏文·九·六

鞏文·七·一一

鞏 5673

鞏文 七·一九



鞏 2956



圓壺

b. 標義偏旁

標義偏旁에는 象形標義, 會意標義, 形聲標義가 있다. 象形字에 形符 한개를 더 더하는 象形標義는 象形字가 이미 그 標義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會意字의 初文에 形符 한개를 더 증가시킨 會意標義는, 偏旁의 의미나 會意字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글자와의 구별작용을 겸하기도 한다. 形聲標義는 形聲字에다 한개의 形符를 증가시킨것으로 形聲字의 形符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가령 行動과 상관이 있는 文字는 彳·止·又·走 等の 形符를 더 첨가하며, 국가나 거주하는 것과 상관된 形聲字인 경우 宀·广·口·土·阜·邑 等 관련된 偏旁을 더 첨가하여 의미를 강화시킨 것이다. 이는 戰國시대 全域에 나타나는 現象으로 形聲標義字는 齊系에 특히 많이 존재하며, 新造字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아래 그림 4.③.b)

이렇게 더해진 義符는 原字의 屬性과 의미를 한층 더 분명하게 해주지만, 더해진 義符를 제거한다 해도 原字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뚜렷하고도 명확한 標義기능을 가진 繁化字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작용을 하였으므로 義符를 제거하면 의미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역시 지나치게 복잡한 繁化字인 경우는 자연히 도태되었다.

그림 4) ③. b. 標義 便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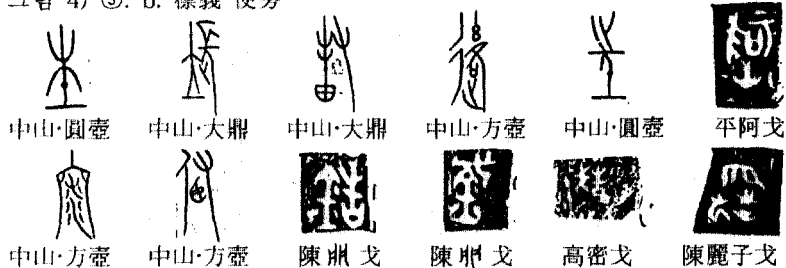


그림 4) ④. 音符의 增加



④ 音符의 增加

音符의 增加란 이미 音符가 있거나 혹은 音符가 불필요한 文字에 音符를 첨가하는 것으로 象形·指事·會意·形聲字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 더해진 音符는 결코 原字의 讀音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表音成分의 이해를 더해줄 뿐이다. 이러한 音符의 增加현상은 殷周文字에 이미 존재했으며,¹⁶⁾ 어떤 글자는 音을 더해 만들어진 후 의미가 더욱 분명해짐으로 심지어 標準字體가 된 것도 있고, 후대까지 계속 사용되기도 하였다. 17) 그러나 대부분은 과도하게 복잡해져서 音符가 생략되거나, 자연적으로 도태된 것이 많다.(앞 페이지 그림 4.④)

이상에서 분석된 규율을 통해 戰國時期 文字 繁化현상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귀납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문자 구조의 繁化이며 둘째는, 書寫 형태에 의한 繁化이다. 構造 繁化는 대부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첨가한 형태로 문자가 고정되기 전에 이미 형체를 첨가하여 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규명해낸 형태외에도 繁化된 형태가 合理的이지 못한 경우도 많아, 전국문자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의 예를 함께 살펴보아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율을 밝혀낼 수 있기에 또다른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書寫형태에 의해 생긴 繁化字는 미관상 균형을 갖추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것들이 첨가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形體의 重複, 形符·聲符·義符의 증가등은 모두 構造 繁化에 해당하며, 그밖에 장식을 첨가하거나, 작은 점의 첨가, 筆劃의 첨가, 선의 연장, 偏旁의 중복등은 書寫繁化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의 이해는 古文字를 연구하거나 해독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각 地域에 나타난 文字 繁化 형태를 綜合 整

- 16) 예를 들어 '鳳'은 甲骨文에서 본래 '鳳' 形이나, 그중에는 音符 '凡'을 더한 鳳_凡形이 쓰여 表音成分의 이해를 도와준 것이다.
- 17) '寶'字는 小子省_省에는 寶_省의 형태였으나 楚公鐘에는 繁化된 字體인 寶_省로 쓰였다. 音符'缶'字가 더해진 글자가 후대에까지 통용된 예이다.

理解 보면 楚系는 美術體의 형태와 鳥蟲書, 여백을 메꾸기 위한 點, 劃의 첨가가 많았고, 齊系는 새로 생겨난 形聲字가 특별히 많이 존재했다.(造 - 船, 銑, 戈 등등) 특히 三晉系는 裝飾性 문자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으며 (ㄱ, ㄴ, ㄷ, 筆劃의 延長 등) 秦系는 鳥蟲書, 美術體, 새로운 異體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宗周文字 형태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繁化的 影響

春秋에서 戰國時期에 이르기 까지 문자에 많은 발전 및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미 II, III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새로운 文字가 생겨났으며, 繁化現象 역시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문자가 불어나게 되는 당연한 결과와 당시 열국이 난립해 있던 시대적 상황, 書寫재료의 다양화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직 戰國文字 만을 따로 수록한 사전이 없기 때문에 許慎의 <說文解字>까지 불어난 문자의 수를 대략 추정해 보면 甲骨文의 수가 四千五百餘字, 金文은 약 五千字로 추정되던 것¹⁸⁾이 戰國末期에서 東漢, 許慎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萬字로 불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文字 증가 형태 속에는 늘 簡化와 繁化 현상이 서로 공존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¹⁹⁾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보면 문자는 본래 부호 체계이기 때문에 가지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과 인류의 교제에 사용되어지는 교제도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사용하기에 간편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본질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簡化는 時代와 社會의 발전에 따라, 글을 씌에 있어 편리해야 한다

18) 甲金文字數 통계 결과는 李孝定교수가 孫海波, 容庚등이 수집한 글자 수를 더한 것이다.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中國文字的原始與演變> p130~144

19) 李孝定, 위의 책. p176~178

는 요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繁化는 文字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에다 쉽게 이해하고, 읽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요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즉, 繁化는 文字발전에 있어 '體'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簡化는 '用'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의 몇몇 학자들은 繁化는 簡化의 '逆流' 현상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簡化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한 것으로, 비록 商周 이래 많은 文字가 끊임없이 簡化되는 가운데 일부는 繁化가 簡化의 부족을 메꾸다가 文字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古文字가 발전해 나온 과정에서 볼 때 繁簡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전해온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닌 繁化字의 繁化 결과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는 것은 문자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라 할 것이다.

① 繁化字가 성행하고 簡化字가 폐기됨.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繁化 혹은 簡化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문자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너무 간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도태되었다. 戰國時期 繁化字가 성행하자 간단한 文字가 폐기된 이유는, 간단한 문자의 의미가 繁化字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繁化字가 생겨난 원인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Ⅱ장 ①부분에서 상세히 논한바 있다.

② 繁化字와 簡化字가 訛變됨으로 문자통일의 계기를 마련

戰國時期에 이르자 각종 새로운 文字가 발생하고, 각 지역마다 畀字가 앞 다투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繁化字는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과 구부러진 곡선체의 글씨를 즐겨 씀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특히 三晋系 兵器上의 銘文에 나타난 簡化字는 있는 지혜를 다짜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繁化字, 簡化字를 막론하고 이상한 형태의 글자로 변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文字

가 해독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繁化字가 死文字가 되기도 하였으며, 簡化字 역시 筆劃을 생략함으로 인해, 偏旁이 바뀌기도 하고, 簡化된 音符를 繁化된 形音符로 대치하기도 하여 문자 구조상 同化, 類化, 異化등의 訛變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許慎이 말한 ‘文字異形, 語言異聲’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마침내 秦政府가 천하를 통일한 후, 文字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③ 古今字²⁰⁾가 생겨남.

繁化는 종종 文字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何琳儀는 戰國文字 중 異體字가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 繁化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繁化字는 秦漢이후 古今字가 대량 생겨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²¹⁾

古今字는 사실 秦·漢의 繁文이며, 앞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秦·漢 이후의 繁化는 初文의 주요한 偏旁에 또다른 偏旁을 붙이는 것으로 이를 ‘과생자’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何琳儀가 밝힌 바와 같이 繁化의 결과에서 생겨난 한 현상인 것으로 繁化의 광범위한 운용인 것이다. 예를 들어 然은 木義가 ‘태우다’이다. <孟子·公孫丑上>의 “若火之始然, 泉之始達”(불이 처음타며 샘물이 처음 흐르는 것과 같다.)에 쓰인 然은 木義로 쓰인 例이다. 그러나 이는 周代에 이미 假借되어 ‘그러하다’의 語義를 갖게 되었다. 이에 兩漢以後에 偏旁인 ‘火’를 더하여 ‘燃’字가 새로 만들어 지고 그것이 然의 木義인 ‘태우다’의 어의를 취하게 됨에 따라 古今字의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또 欲과 慾은 ‘貪하다’의 의미이다. <說文> ‘欲’의 注에 段玉裁는 ‘欲’이 後代에 생긴 것이라 주장했다.(“古有欲字, 無慾字, 後人分別之, 制慾字”) 이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

20) “古今人用字不同, 謂之古今字”(《說文》‘今’字 段玉裁注) “凡言古今字者, 主謂同音, 而古用彼, 今用此”(《說文》‘余’字 段玉裁注)

21) 何琳儀, 앞의 책. p235

내는 단어가 시대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字形을 달리하는 것으로 모두 繁化字의 영향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繁化는 戰國時期 古文字에 자주 나타나는 現象으로 줄곧 簡化와 共存하며 발전해 나왔다. 繁化가 생겨난 이유로는 文字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과, 美化作用 및 文字구조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것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겨난 繁化現象은 古文字연구에 적지 않은 곤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다양하게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龍宇純교수의 ‘基因’을 이용한 연구방법은 이러한 현상을 해부, 분석, 관찰, 종합한 것으로 繁化字의 文字구조, 形·音·義의 변별까지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繁化方式의 규율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 규율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귀납될 수 있었는데 그 첫째는 文字構造의 繁化로 形體의 중복, 形符, 聲符, 義符의 증가등이 이에 해당 되었다. 둘째로는, 書寫形態에 의한 繁化로 장식적 첨가하거나, 작은 점의 첨가, 筆劃의 첨가, 선의 연장, 偏旁의 중복등이 이 부분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繁化가 생겨나게 된 원인부터 규율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戰國時期에 많은 繁化字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까닭과 그 이후 끼친 영향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中國 古文字 발전 과정의 참된 변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글자가 출토된 器物을 통해 연구된 繁化현상이므로, 후세 사람들의 수정을 거친바 있는 文獻으로 연구된 결과보다도 문자 발전의 규율을 파악하는 데 있어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 參考文獻

- 段玉裁 <說文解字注> 藝文印書館 台北 1956
周法高等 <金文詁林> 中文大學 香港 1975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巧釋> 龍門書局 香港 1957
嚴一萍 <金文總集> 藝文印書館 台北 1983
羅振玉 <三代吉金文存> 龍門書局 香港 1966
馬敘倫 <說文解字研究法> 太平書局 香港 1964
唐 蘭 <古文字學導論> 學海書局 台北 1986
 <中國文字學> 太平書局 香港 1965
徐仲舒等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 成都 1988
李學勤 <古文字學初階> 中華書局 北京 1985
 <中國青銅器的奧秘> 商務印書館
 <東周與秦代文明> 文物 北京 1984
杜學知 <漢字三論> 藝文印書館 台北 1975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中央研究院出版 台北 1982
 <漢字史話> 聯經出版公司 台北 1977
 <金文詁林附錄> 中文大學 香港 1977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聯經出版公司 台北 1986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中華書局 北京 1989
中國文字學會編 <中國文字論集> 中國文字學會 台北 1955
容庚張維持合著 <殷周青銅器通論> 龍泉書局 台北 1986
康 殷 <古文字學新論> 新華書店 北京 1983
國際中國文字學研討會編 <古文字學論集> 中文大學 香港 1983
龍宇純 <中國文字學> 崇基學院 香港 1968